어울림마당 화보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해 더 빛나는 우리”

지난 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조계종 총무원,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아름다운 동행이 공동으로 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 두달여 간 전국에서 펼치는 부처님오신날 행사의 백미인 서울 연등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열린 어울림마당은 연등축제를 준비하는 사전행사이면서 불교의 자비정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해가 갈수록 동참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사찰의 연희단과 율동단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으며, 봉축위원장 자승스님, 봉축위 집행위원장 영담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불교계 어른 스님들과 신도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장애인의 아픔을 체험하는 체험관, 불교복지 퍼즐 게임, 장애우 난타 판소리 등 공연도 펼쳐졌다. 계절의 여왕 5월의 하늘을 더욱 빛낸 어울림마당을 화보로 펼쳤다.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봉축위원장 자승스님은 “오늘 어울림마당과 자비나눔 행사를 계기로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 나눔이 사회 곳곳에서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0000여 사부대중이 희망의 연꽃등에 불을 밝혔다.

흥겨운 율동 모습.

◀ 어울림마당에 참여한 각 사찰 연희단과 율동단은 준비한 의상을 입고 지난 1년 간 정성껏 준비한 실력을 뽐냈다.

‘소외계층 희망더하기’를 주제로 열린 2부 자비나눔 행사에서는 저소득가구 후원을 위한 성금모금과 함께 장애우들의 난타, 판소리 등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시행 종교자유 침해 사례 아니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이 종교자유를 침해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일 일요일 시험 실시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에 부합하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다수의 국민이 학업과 생계활동 등 일상생활에 가장 지장 없이 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장소로 제공된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시험 시행기관이 응시자의 편의와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를 서로 비교해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점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로 인한 공익이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에 비해 작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헌 결정과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차후에라도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종교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미국 ‘국가기도의 날’ 위헌 결정

찬반논란 속 국회의사당서 기념행사 열려

지난 58년간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선포해 온 기념일인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이 정교분리와 종교자유에 관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두고 미국 사회에서 종교자유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위헌 판결은 지난 4월 미국 위스콘신주 연방법원 바바라 크랩 판사가 내린 것으로, 크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정부가 특정 종교 행위를 지지하고 권고하는 기도의 날은 정교 분리와 개인의 종교 자유에 관한 미 연방헌법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국가 기도의 날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도 위헌 판결이 나자 전국 주지사와 시장들에게 기도의 날 행사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위헌 판결을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위헌 판결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4월22일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으며, 일부 보수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기도의 날 수호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위헌 판결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는 국가기도의 날 행사가 열렸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도와 명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한편 국가 기도의 날은 1952년 미 양원의 합동 결의 사항으로 통과돼 해리 트루먼 정권 때 법제화된 기념일로 1988년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에 공식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법화종 총무원장 혜륜스님 재임

대한불교법화종 제18대 총무원장에 혜륜스님이 재임됐다. 법화종은 지난 10일 부산 흥국사에서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

단독후보로 출마한 혜륜스님은 총 재적의원 13명 중 12명이 출석한 중앙종회의 투표 결과, 찬성 11표, 무효 1표를 얻어 선출됐다. 혜륜스님은 당일 당선증을 교부받고, 종정 성파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혜륜스님은 “지난날 대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종단의 종무행정을 경험 삼아 새로운 승풍을 일으켜 화합과 더불어 새롭게 창종한다는 마음자세를 갖고 지도교육을 통한 개혁으로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최병문 부산지사장 ch4717@ibulgyo.com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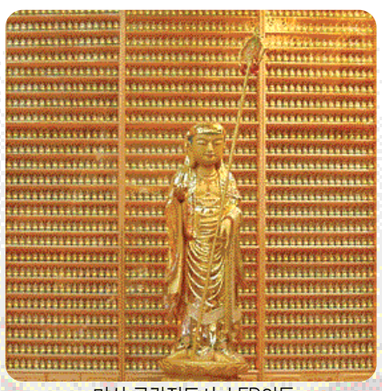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